

실제의 기록과 허구적 창작에 보이는 어득강의 인물 형상

백 윤 용*

- I. 머리말
- II. 『왕조실록』에 나타난 어득강의 인물 형상
 - 1. 언행에서 추출한 어득강의 인물 형상
 - 2. 평판에 나타난 어득강의 인물 형상
- III. 기록과 창작에 수용된 어득강의 인물 형상
 - 1. 地誌에 수용된 어득강의 인물 형상
 - 2. 문헌 전승 자료에 수용된 어득강의 인물 형상
 - 3. 고소설에 수용된 어득강의 인물 형상
- IV. 마무리

국문초록

灌圃 魚得江(1470~1550)은 조선 전기 헌납, 교리,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그에 관한 기록은 『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조보감』 등 관찬 사서뿐 아니라 『목계일고』 등 당대 및 후대의 많은 문집, 『밀양지』 등 지리지, 『姓號譜彙』, 『海東野言』 등 문헌 전승 자료 등에도 다수 전하고 있으며, 그를 주인공으로 한 고소설 『어득강전』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관포시집』과 『어득강전』을 중심으로 한 어득강 연구에서 나아가 역사서를 바탕으로 실제의 기록에 주목하여 어득강의 인물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meeru100@hanmail.net

형상을 구체적으로 살펴거나, 실제와 허구의 인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득강의 인물 형상을 천착하는 등의 연구도 진행해야 어득강 관련 연구가 균형을 갖추고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들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왕조실록』에 드러난 인물 형상을 바탕으로 어득강의 실제의 모습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허구적 모습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이때 실제에서는 원칙론자의 성격이 강하다면 허구에서는 기지 넘치는 재담가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원칙의 긴장과 재담의 여유라는 상반되는 가치가 동전의 양면처럼 한 인물에게 공존하면서, 실제와 허구라는 양식 속에서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어득강 인물 전승에 보이는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어득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허구적 형상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한다.

이 글은 우선 실제와 허구에서 어득강의 인물 형상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왕조실록』에 보이는 그의 언행과 평판에 주목하여 살펴본 결과, 어득강은 백성을 구휼하는데 힘쓴 목민관이었으나 세상의 영예에 관심이 없었기에 염퇴하여 절의를 지키는 삶을 살았고, 이 때문에 우월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자라는 평판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그의 성향이 언행을 통해 표출될 때,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보였고, 냉철한 판단으로 분명하게 간언한 강직한 신하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어득강이 실제로 하고자 한 일은 세상의 교화에 도움이 되는 역할, 이른바 치인이었기에 인재 양성을 위해 서원과 書肆 설치를 주장한 실용주의자의 면모도 동시에 보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인물 형상은 지지나 문헌 전승 자료 등에 선택적으로 편입되기도 하고, 소설 등에서 허구적 인물을 창출하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지지에 선택적으로 수용된 어득강의 인물 형상은 문제가 뛰어난 문장가, 백성을 구휼한 목민관, 염퇴와 절의의 지사, 재기와 유머가 넘치는 재담가였다. 지지에 선택적으로 수용된 자료로 볼 때, 지지의 기록자들이 주목한 어득강의 모습은 조정에서 활약하는 강직한 신하가 아

니라 염퇴하여 자적하는 지역의 인사였다고 할 수 있다.

문헌 전승 자료에 등장하는 어득강의 인물 형상은 지지에 보이는 절의와 염퇴의 지사로서의 모습과 대동소이하지만, 재기와 유머가 넘치는 재담가의 모습이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재담가의 모습을 그리면서 어득강의 인물 형상에 허구적 창작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어득강전』은 문헌 전승 자료에 등장하는 재기와 유머가 넘치는 재담가의 모습과 친연성을 보여주면서도 어득강의 실제 인물 형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새로운 인물 형상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리인을 통해 속임수를 수행하는 책사적 영웅, 부당한 권력의 압제에 기지를 통해 저항하는 인물, 희극적이고 유연한 징별로 불의에 맞서서 승리를 쟁취하는 따뜻한 인물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실록과 소설에서 제시한 인물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양 극단을 지양하는 지혜일 것이며, 이렇게 ‘있는 것’과 ‘있었으면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득강의 인물 형상이 입체적으로 구현한 것이 어득강 관련 자료에 보이는 그의 인물 형상이라 할 수 있다.

◆ 주제어

어득강, 어득강전, 인물 형상, 실제, 허구, 기록, 창작.

I. 머리말

灌圃 魚得江(1470~1550)은 조선 전기 현납, 교리,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¹⁾이다. 그의 저술로는 『관포시집』이 있으며, 『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조보감』 등 관찬 사서에 행적의 일부가 전하고 있다. 또 姜渾(1464~1519)의 『木溪逸稿』 등 당대 및 후대의 많은 문집에도 그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밀양지』 등 각종 地誌, 『姓號譜彙』 등 문헌 전승 자료에도 어득강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다.

어득강과 관련한 자료는 이렇게 실제의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어득강을 제재로 한 많은 허구적 작품이 존재한다. 『海東野言』 등에 어득강을 중심으로 한 허구적 이야기가 전하고 있으며, 그를 주인공으로 한 고소설 『어득강전』도 있다.²⁾

이런 사정 속에 어득강과 관련한 연구는 그가 남긴 작품에 주목하거나,³⁾ 『어득강전』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추출하는⁴⁾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관포시집』의 시를 분석하여 어득강의 세

1) 한국민족대백과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35913> 참조.

2) 여기에 제시한 자료는 모두 사천시의 발간 용역을 수행하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원에서 조사 보고한 『구암학 자료 및 연구 총서 2차년도 보고서 3, 관포 어득강(2019)』에 실려 있다.

3) 대표적인 것으로, 정우락의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시에 나타난 ‘물’의 상상력(『南冥學研究論叢』 22, 남명학연구원, 2017)’, 최재남의 ‘어득강의 삶과 시의 특성에 대한 일고(『韓國漢詩研究』 11, 한국한시학회, 2003)’ 등이 있다.

4) 특히 『어득강전』은 “어득강이라는 실존 인물에다 일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발랄하고 기발한 언동으로 위계질서를 전도시키는 건달의 성격을 부여해서, 탈춤에서의 말쑤이, 설화에서의 김선달과 상통하는 소설의 주인공을 창조했다. 그래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부정되는 모습을 인상 깊게 그렸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문학사적으로 주목받았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제1판, 1986, 332쪽. 참조) 관련 논문으로는, 심재숙의 ‘〈어득강전〉의 형성과정과 주제의식(『우리어문연구』 16, 우리어문학회, 2001)’, 오희정의 ‘『어득강전』의 기법적 특징과 창작 의식(『嶺南學』 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5)’, 김수영의 ‘『어득강전』의 희극성 구현 방식(『민족문학사연구』 59,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등이 있다.

계관 가치관 등을 탐구하거나 『어득강전』을 살피면서 그 희극성, 詭計의 형식 등을 규명하여 작품의 민중지향적 성격을 부각한 것이 그것이다.

이렇듯 어득강에 관한 연구는 『관포시집』과 『어득강전』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어득강과 관련한 관찬 사서, 지리지, 기사 전승 자료 등이 아직 연구의 대상에 편입하지 않아 어득강 연구의 한 부면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역사서를 바탕으로 실제의 기록에 주목하여 어득강의 인물 형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거나, 실제와 허구⁵⁾의 인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득강의 인물 형상을 천착하는 등의 연구도 진행해야 어득강 관련 연구가 균형을 갖추고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제와 허구에서 드러나는 어득강의 인물 형상은 극단적으로 상반된다.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어득강의 인물 형상이 실제의 기록에서는 절의와 염퇴를 실천하는 원칙론자의 성격이 강하다면 허구적 창작에서는 기지 넘치는 재담가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원칙의 긴장과 재담의 여유라는 상반되는 가치가 동전의 양면처럼 한 인물에게 공존하면서, 실제와 허구라는 양식 속에서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어득강 인물 전승에 보이는 독특한 점이다. 어득강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형상화는 허구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어득강이 실제의 기록과 허구적 창작 속

5) 이 글에서는 기록물의 성격을 지닌 자료, 예컨대 실록, 지지 등에 보이는 어득강의 인물 형상을 실제의 모습으로 간주한다. 이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나 수용하는 이들이 이를 실제의 것이라 인식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창작물의 성격의 지닌 자료, 예컨대 소설 등에 보이는 어득강의 인물 형상을 허구의 모습으로 본다. 이를 저술한 이들이나 수용자들이 허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문헌 전승 자료이다. 당대인의 기록 의식 아래 기술한 어득강의 모습이 실제의 모습인지 허구의 모습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득강 이야기에는 언어유희의 재담이 많은데, 실제일 수도 있고 허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구전되다가 정착하였다는 점, 기존의 에피소드에서 소재를 차용하기도 하였다는 점, 사랑방의 우스갯소리 정도로 독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허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허구적 성격의 자료로 다루고자 한다.

에서 어떤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가만을 구명하고자 한다.⁶⁾ 먼저 관찬사서인 『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실제 모습을 기반으로 한 어득강의 인물 형상을 추출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어득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대체로 객관적인 인물 형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제의 이 인물 형상은 지지나 문헌 전승 자료 등에 선택적으로 편입되기도 하고, 야담이나 소설 등에서 허구적 인물을 창출하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즉 기록이나 창작에 드러나는 어득강 인물 형상의 원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한 걸음 나아가 실제의 인물 형상이 지지 등에 기록될 때 어떤 부분이 채택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지지의 기록자들이 어득강의 어떤 부분에 주목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지지 기록자들의 기록 의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 글에서는 허구적 창작물에도 어득강의 인물 형상 가운데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록과 창작이라는 서로 다른 글쓰기 양상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통해 어득강이라는 인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고, 또 이것이 어득강을 소재로 창작한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허구적 작품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를 천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6) 이는 제한된 지면 안에서 모두를 해명하고자 한 시도가 오히려 논지를 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감찬에 대한 허구적 전승 자료는 구전설화에 주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볼 수 있는 강감찬의 인물 형상(백운룡, 강감찬 전승의 지향과 그 의미 - 탄생담과 퇴치담을 중심으로, 『국학연구론총』 21, 태민국학연구원, 2018. 참조)은 어득강에게서 볼 수 있는 인물 형상의 양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강감찬전』이라는 실기소설도 있어 『어득강전』과 비교할 만하다. 이 때문에 이들을 비교하면서 인물 전승의 양상에 따른 형상화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따진다면 허구화의 원리를 파악하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후고를 기약하고, 여기서는 인물 형상의 양상을 드러내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II. 『왕조실록』에 나타난 어득강의 인물 형상

『왕조실록』에서 어득강을 검색하면 38건의 기사를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관직의 임면과 관련한 14건을 제외한 24건이 이 글의 분석 대상이다. 이때 1건에 하나의 언행이나 평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행이나 평판이 나타나고 있어 실제의 사례는 이보다 많다. 이런 기록에서 어득강의 다양한 면모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의 언행과 당시의 평판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⁷⁾

1. 언행에서 추출한 어득강의 인물 형상

1)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한 원칙주의자

『왕조실록』에 나타난 어득강의 인물 형상 가운데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원칙을 중하고 여기고,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원칙주의자라는 점이다. 『중종실록』 중종 5년(1510) 9월 27일의 기록이다. 이날 『시경』을 강하다가 柳順丁, 金希壽 등이 농사의 중요성을 아뢰며, 조정에서 수령의 가속에게 轎軍을 주지 않는다는 법이 있음에도 수령이 위세를 앞세워 이를 어겨 농사철에 농민의 피해가 크다며 이를 엄히 금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어득강은 이렇게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비록 법령을 반포하여도 사람들이 받들어 행하지 않으며, 또 사치의 풍습을 개혁하고자 하여 朝旨가 날로 내리건만 거의 봉행하지 않아서 사치가 날로 일어나니, 모름지기 그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적발하여 장래를 징계하소서.⁸⁾

7) 사관이 기록한 어득강의 언행에서는 어득강의 실제 모습을 추출할 수 있으며, 주변의 평판에서는 어득강의 언행에 대한 평가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한 인물의 실제 행동과 그것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을 동시에 고려할 때, 인물 형상이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8)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9월 27일조, “我國家法令雖布 人不奉行 且欲革奢侈之風

(나)三公의 임무는 道를 강론하고 나라를 경륜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순정이 아뢰, 농사를 힘쓰자고 한 말은 단지 末事に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사치의 폐단이 극도에 이르렀는데도 이것은 일찍이 논한 일이 없으니, 그래도 되겠습니까?⁹⁾

(가)는 법령을 어기는 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증충은 ‘이 말이 매우 마땅하다’며 어득강의 말에 동의하다. 그러자 어득강은 다시 (나)에서처럼 당시 우의정 유순정이 있는 자리에서 삼공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한갓 말사만 논하고 있다며 논박하면서 고관의 폐단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같은 언행은 같은 해 10월 12일 권벌 등이 평안도의 백성을 안정시키고 야인을 평정할 인재를 천거한 일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득강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다) 儒者の 행실은 나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다만 떨어진 베도포를 입을 뿐인데, 지금의 유자는 貂皮를 쓰고 가벼운 옷을 입으며, 말이 없으면 나다니지 아니하니, 선비의 풍습이 이와 같이 무너졌습니다. 사헌부가 엄금해도 제어하기 어려우니, 이와 같은 무리에겐 영원히 과거 응시를 정지케 하소서.¹⁰⁾

(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힘쓸 일을 급히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대신이 전혀 어진 이를 천거하지 않으니, 이것은 먼저 힘쓸 일을 급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너의 아는 바를 천거하면 너의 알지 못하는 것을 남이 어찌 버리겠는가.’ 하였습니니다. 사람을 천거하는 것은 저의 임무가 아니나, 대신이 말하지 않으므로 신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¹¹⁾

而朝旨日下 略不奉行 奢侈日興 須摘其不畏者 以懲其後”

9)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9월 27일조, “三公之任 在於論道經邦 而順汀所啓務農之言 特末事耳 今奢侈之弊極矣 而曾不論啓可乎”

10)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0월 12일조, “儒者之行 不恥惡衣惡食 但衣敝緇袍而已 今之儒者 蒙貂衣輕 無馬則不行 其士習之毀如此 憲府雖痛禁而難制 請如此之類 永永停舉”

11) 『중종실록』 권12, 중종 5년 10월 12일조, “古人云急先務 今之大臣 專不薦賢 是不急先務也 孔子曰 舉爾所知 爾所不知 人其舍諸 小臣之薦人非任矣 然大臣不言 故臣不得不言”

(다)에서 보듯이 어둡강은 유자의 자세를 잃은 자들에게는 아예 과거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범질서를 엄히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라)에서처럼 대신들을 비판하고 공자의 말을 인용하며, 소신과 원칙에 따라 인재를 천거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왕조실록』의 곳곳에 등장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오는 명나라 사신들이 반드시 先聖을 배알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으니, 이는 館伴의 실수입니다.”¹²⁾ “지금 국가에서 법쓰기를 너무 가볍게 합니다. … 우리나라는 紀綱이 없습니다.”¹³⁾ “법을 악용한 관리는 영구히 敍用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령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과 법이 병행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늘 인정이 법보다 앞서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두 서용하고 있으니 지극히 부당한 처사입니다.”¹⁴⁾ “옛적에는 蒲鞭으로만 욕을 보여도 백성들이 법을 두려워하여 범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백성들이 전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이익이 있는 것이면 죽음을 무릅쓰고 하므로, 杖罪로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전가 사변하는 법을 만든 다음에야 惡布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¹⁵⁾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둡강은 당면 문제를 사사건건에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 법령, 기강 등 근원을 바로잡아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 방법 또한 엄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2)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1월 8일조, “自古天使之來此邦者 必謁先聖 而今則不然 此館伴之失也”

13)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1월 8일조, “今 國之用法太輕 … 我國無紀綱”

14) 『중종실록』 권65, 중종 24년 4월 29일조, “枉法官吏 永不敍用者 在令甲也 但情法不能並行 而情勝於法 故不爲懲戒 今皆爲敍用 至爲不可也”

15) 『중종실록』 권65, 중종 24년 4월 29일조, “古者雖蒲鞭致辱 民猶畏法而不敢犯 今時則不然 百姓恬不知恥 而利之所在 則尚且冒死而爲之 難可以杖罪禁戢也 不得已立全家徙邊之法 然後惡布不得行用矣”

2) 냉철한 판단으로 분명하게 간언한 강직한 신하

『왕조실록』에 보이는 언행을 중심으로 어득강의 인물 형상을 추출했을 때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직설적으로 간언하고 포괄하는 강직한 신하의 모습이다. 어득강은 어전이라 해서 눈치를 보거나 해야 할 말을 참지 않았다.

納穀은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의 부족한 군량미를 충당하기 위하여 상인 혹은 자원자들이 먼저 북쪽 지방에 곡물을 납입하고 증서를 받아 오면 값을 더하여 경·강·충청 등지에서 조세로 거둔 미곡으로 지급하던 제도였다. 그러나 장사치들이 미곡을 바치지 않고 권세가와 결탁하여 면포나 다른 물품으로 납부하였고, 수령들은 마치 미곡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¹⁶⁾ 그런데 중종 24년(1529) 5월 11일 사간원에서 安陽君 부인과 全城君 부인 등이 납곡의 비리가 있었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그 종을 조사한 결과, 그 종이 이는 곧 대비전의 書題 朴貞元이 납곡한 것이고, 나는 모르는 것이라 했고, 박정원을 조사하니 ‘저의 곡식이 아니라 곧 대비전의 곡식이다.’라고 하였다.¹⁷⁾ 이에 대해 중종은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후의 재산을 屬公하기 난처하다고 하였는데, 정광필, 심정, 이행 등도 자전의 곡식으로 속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어득강은 다음과 같은 차자를 올려 비록 그 조치가 모후를 위한 임금의 효성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간언하였다.

(마) 납곡하고 베로 바꾸어 받는 짓은 사대부들도 부끄러워하는 일인데, 上殿께서 그런 일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이런 일이 있다면 전하께서 완곡한 말로 은근히 간하여, 기어코 허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곧 큰 효성입니다. … 그르게 된 일을 바로잡는 것을 여론이 어찌 해롭다고 하겠습니까? 신들은 그 베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뒷사람들이 전하를 어떻게 평할까 두렵습니다. 전

16) <위키 실록사전>,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 참조.

17) 『중종실록』 권 65, 중종 24년 6월 12일조 첫 번째 기사 참조.

하께서는 한 나라로 자전을 받드시니, 만일 자전께서 부득이 꼭 쓰실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분부를 내리시어 정당한 供上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 예이지, 재물로 기쁘시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¹⁸⁾

(마)에서 보듯이 당시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심정, 우의정 이행 등이 중종을 옹호하였으나, 어득강은 임금의 처신이 곧 후대의 규범이 된다고 하면서 사사로운 정보다는 공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또 중종 17년(1522) 1월 8일 尹仁鏡이 조강에서 평안도의 성 쌓는 일을 우선 중지하여 백성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남곤이 백성의 곤육이 있겠지만 성을 쌓는 일은 국방의 요체이므로 미룰 수 없다고 하였다. 중종은 이에 대해 성을 쌓는 것은 중한 일이어서 부득이 해야 하니, 작은 폐단은 헤아릴 것이 없다면서 남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어득강은 여기에 반대하며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바) 天顔의 지척 앞에서도 또한 쌓아야 한다고 하는데, 더구나 그 일을 물러나 의논하는 것이겠습니까. 마땅히 성상의 요량으로 (중지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옛 사람들 역시 때가 아닌데 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기 때문에 『춘추』에도 기롱하여 이르기를 ‘中丘에 성을 쌓다.’, ‘郕에 성을 쌓다.’고 한 것입니다.¹⁹⁾

평안도 의주에 성을 쌓는 일은 국방의 요체이므로 하루도 늦출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농사철이 시작되는 때이므로 일손이 바쁘는데 성 쌓는 일에 동원하여 백성을 괴롭힐 수 없으니 추수한 뒤에 부역을 시작하자는 것이 윤인경이 건의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남곤과 중종은 작은 폐단 때문에 중요한 일을 늦출 수 없다고 하면서 성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득강은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하지만 때가 아니므로 늦추어야

18) 『중종실록』 권 65, 중종 24년 6월 13일조, “納穀換布 士夫所恥 曾謂上殿有是事乎 誠有此事 在殿下 婉辭幾諫 期至無過之地 是孝之大者 … 矯事之非 而歸之於正 物論豈病之乎 臣等非愛其布 畏後世之議殿下也 殿下以一國 奉慈殿 慈殿如有不得已之費 則分明降旨 獻以正供 禮也 不可以貨悅志也”

19) 『중종실록』 권 43, 중종 17년 1월 8일조, “在天顔咫尺之下 亦曰可築 況退讓其事乎 當斷自宸聽 古人亦以不時爲重 故春秋譏之曰 城中丘·城郕”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어득강은 『춘추』에서도 그런 일은 어리석은 것이라 비웃었다는 예를 들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

3) 인재 양성을 위해 서원과 書肆 설치를 주장한 실용주의자

어득강의 언행을 통해 『왕조실록』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어득강의 세 번째 인물 형상은 당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걸맞은 대안을 제시하는 실용주의자의 면모이다. 특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원과 서사를 설치할 것을 주장한 것에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난다. 특히 지방학제 진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의 하나로서 지금까지의 향교가 아닌 교육기구로서의 중국서원제 도입을 처음 제기한 것은 어득강에 의해서였다.²⁰⁾

(사) 한나라 鄭玄은 생도들을 모아 가르쳤고 수나라의 王通은 河汾에서 강학하였으며, 당나라 李渤은 남당 때 백록동의 주인이 되니 배우는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무리가 수천 명에 이르렀으므로, 송나라 황제가 九經을 내려서 장려했습니다. 周子·張子·程子·朱子에게 각기 문도가 있었는데 그 문하에서 나온 자는 모두 명공석유로서 스승보다 더 나았습니다. 李公擇은 山房에 만 권의 책을 간직하여 학자들과 함께 이용했고, 주희는 무이정사를 짓고 백록서원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도가 우리나라에는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먼 곳에 있는 유생들이 어디서 학문을 배우겠습니까.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는 선비들이 詩書를 숭상하니, 신은, 충청도·강원도·전라도의 중앙과 경상 좌우도에 각기 한 사찰을 얻어서, 생원 진사를 막론하고 도내의 명유들을 불러 모아 1년의 四仲月에 상하의 齋로 나누어 앉아 독서하게 하는 것을 연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²¹⁾

20) 국사편찬위원회 편, 『신편 한국사 28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탐구당, 2003, 282쪽.

21) 『중종실록』 권98, 중종 37년 7월 27일조, “漢之鄭玄 聚徒教授 隋之王通 講學河汾 唐之李渤 爲南唐 白鹿洞主 學者雲集 至趙宋初 其徒尙數千人 宋帝賜九經以獎之 周張程朱 各有門徒 其出於門者 皆名公碩儒 青出於藍 李公擇 貯山房萬卷之書 以與學者共之 朱熹建武夷精舍 修白鹿書院 此道不行於東國 遐裔之儒 何所問業 慶尙全羅忠清江原四道 士尙詩書 臣意忠清江原全羅 各一道中央 慶尙左右道 各得一大寺刹 聚道內名儒 勿論生員進士 歲以四仲之月 分上下齋 讀書年例”

(사)는 중종 37년(1542) 7월에 올린 상소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어득강은 중국의 서원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서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구체적으로 각 도의 큰 사찰을 활용하여 유생을 모아 교육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비록 과거를 위한 제술의 방편으로 논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조정의 분위기 속에서 관학을 대신할 사학이 필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²²⁾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득강은 중종 말, 성리서의 수입과 간행이 다시 활발해지고 아울러 서적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희귀하고 긴요한 책을 모아던 상황에서 지금의 서점이라 할 수 있는 서사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서사 설치에 대한 논의는 중종 14년에 잠깐 제기되었다가 기묘사화로 무산되었는데, 어득강이 중종 17년(1522) 3월 4일 조회에서 다시 서사 설치를 주장하였다.²³⁾ 그러나 중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어득강은 포기하지 않고, 중종 24년(1529) 5월 25일 조강에 나아가 다시 한번 서사 설치를 요구한다.

(아) 외방의 유생 중에는 비록 학문에 뜻이 있지만 서책이 없기 때문에 독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궁색한 사람은 값을 마련하지 못해 책을 사지 못하고, 더러 값을 마련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대학』이나 『중용』 같은 책은 常綿布 3~4 필을 주어야 사므로, 값이 비싸서 못 사게 됩니다. 가령 서점의 책에 값을 정해놓고 監掌하는 관원을 두어 사고팔기를 원활하게 하여 영구히 전해가게 한다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 지금 서점을 설치하고 서책을 내놓는다면, 뜻 있는 사람은 비록 사다 읽지 못하더라도 (서사에서) 온 종일 보고 나면 기억할 수 있을 것이

22) 국사편찬위원회 편, 『신편 한국사 28 조선 중기 사람세력의 등장과 활동』, 탐구당, 2003, 283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론 8 조선전기 서원과 향약』, 1980, 35쪽.

23) 우리나라는 서적을 인출하는 데가 도서관 하나뿐이어서 비록 학문에 뜻을 두는 사람이 이더라도 서적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중국에는 書肆가 있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쉽사리 구입하여 배워 익히니, 지금 저자 안에 서사를 설치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구입하여 그 편리함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我國書籍所出 只校書一館耳 雖志於學者 無書籍可購 故志不能就 中朝則有肆 故欲學者 易得而講習之 今於市中 若設書肆 則人皆得以質買 而資其利矣.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3월 4일조)

니, 지극히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해조에 계획을 세워 설립하게 하소서.²⁴⁾

(아)에서 볼 수 있듯이 학문에 뜻이 있어도 책을 구입할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여 공부에 매진할 수 없는 이를 위해 어득강은 서점을 설치하여 조금 더 저렴하게 책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도 뜻을 펼칠 기회를 열어주고자 하였다. 그의 건의가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도 계속 논의되어 중종 33년(1538)에는 서사를 설치하여 시행하자는 대신들의 요구로 담당 관서에게 구체적인 절목을 마련하라는 왕의 지시가 내려지기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명종 6년(1551)에 서사를 설치하는 법이 시행되어 비로소 일반인들이 서적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²⁵⁾

2. 평판에 나타난 어득강의 인물 형상

『왕조실록』에 나타난 언행에서 보이는 어득강의 인물 형상을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한 원칙주의자, 냉철한 판단으로 분명하게 간언한 강직한 신하, 인재 양성을 위해 서원과 서사 설치를 주장한 실용주의자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어득강이 직접 말하고 행동한 결과에서 추출한 것이지만, 그의 인물 형상 가운데 일부를 해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대인의 시선으로 그의 언행을 평가하고 판단한 이른바 평판으로 이것을 보완할 때, 어득강의 인물 형상이 보다 입체적으로 드

24) 『중종실록』 권65, 중종 24년 5월 25일조, “外方之儒 雖有志於學 以無書冊 不能讀書者 亦多有之 其窮乏者 不能辦價買冊 而雖或有辦價者 如中庸大學 亦給常絀布四三匹 買之 價重如此 故不能買之 若書店之冊 則量定其價 又設監掌之員 而通行買賣 傳於永久 可得無弊矣 … 今設書店 出置書冊 則有志者 雖不買讀 終日披閱 猶可記憶矣 至爲便益 請令該曹磨鍊設立”

25)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신편 한국사』에는 이에 대해 “서사는 성리서의 보급을 통해 당시 학자들이 성리학을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신편 한국사 28 조선 중기 사람세력의 등장과 활동』, 탐구당, 2002, 311쪽.

러날 수 있다.

『왕조실록』에 보이는 어득강에 대한 평판은 첫째, “백성을 구휼한 목민관”이라는 것이다. 중종 2년(1507) 4월 14일 중종이 유자광에게 횡령한 자와 병들어 (고을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자와 갑자년(연산군 10, 1504) 이후로 백성을 구휼한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물었다. 이에 유자광이 백성을 구휼한 자는 산을 현감 어득강이라고²⁶⁾ 대답하였다. 여기에 대해 대간들은 “(유자광이) 어득강이 백성 구휼한 것을 포상하기를 청하니, 이것은 득강을陞敘하려는 것이요 또 반드시 권세를 자기에게로 돌려서 조종하기를 제 손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²⁷⁾라면서 유자광을 비판하였다. 또 다음 날, 홍문관 부제학 李胤 등이 상소하기를, “어득강의 백성 구휼이나, 金貞幹의 횡령이 정말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정에서 자연 처리할 일이지 자광이 간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 내심은 한 편으로는 은혜를 보이고 한편으로는 위엄을 보여, 威福이 오로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하려는 것입니다.”²⁸⁾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자광이 비록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한 말이라 하더라도 어득강이 백성을 구휼한 일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유자광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라면 그가 추천한 인물도 함께 비판해야 할 듯한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다음 해에 어득강이 그런 백성을 구휼했다는 평가 때문이었는지 장령에 임명되어 중앙 정계로 진출하기 때문이다.

『왕조실록』에서 볼 수 있는 어득강의 평판 가운데 두 번째는 “절의와 염퇴를 실천한 지사”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헌납 어득강은 벼슬에 담담하여 물러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니 진실로 착한 사람입니다.”²⁹⁾, “대사간 어득강은 전에 벼슬을 좋아하지 않아서 염퇴의 절개가 있는 듯

26) 『중종실록』 권2 중종 2년 4월 14일조, “橫斂者 公州牧使金貞幹 病不治事者 興陽縣監閔嵩 恤民者 山陰縣監魚得江”

27) 『중종실록』 권2 중종 2년 4월 14일조, “請褒魚得江卹民 是欲使得江陞敘 此必欲權歸於己 操縱在手而然耳”

28) 『중종실록』 권2 중종 2년 4월 15일조, “且魚得江之恤民 金貞幹之橫斂 雖信有是 朝廷自當處置 非子光所宜與 一以示恩 一以示威 欲威福專出於己也”

29) 『중종실록』 권34 중종 13년 10월 22일조, “獻納魚得江 安於恬退 固善人也”

하였습니다.³⁰⁾”, “염치를 숭상하여 시골집의 가난하기가 빈한한 사람과 다름없이 청빈하였다. 그리고 공명의 득실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으니, 세상을 경계시키기에 충분한 사람이다.³¹⁾”, “득강은 벼슬길에 나가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염퇴의 절개가 있었다.³²⁾”, “어득강은 사람됨이 오화한 듯하나 청렴하고 겸손하며 또한 지조가 있습니다.³³⁾”, “어득강 역시 맑고 간결하며 명예나 이권에 뜻이 없는 선비이고 또한 문장과 학문도 있으니 역시 특별히 서용하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³⁴⁾”, “어득강은 성품이 본디 소탈하고 뜻은 염퇴를 지향하여 벼슬살이를 좋아하지 않으니, 사무가 번잡한 직에는 마땅하지 않더라도 성균관 관원 정도는 제수해도 될 것입니다.³⁵⁾”등에서 그가 절의를 숭상하고 염퇴를 실천한 선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관이 어득강을 두고, “아, 이 두 사람 [이현보와 어득강]의 염퇴한 지조와 자신을 지키는 의는 벼슬하기에 급급하여 아침에 은명을 받았다가 저녁에 사약을 받는 자들과 비교하여 본다면 그 차이가 현격하다.”³⁶⁾라고 하였던 것이다.

평판에 드러나는 어득강의 세 번째 인물 형상은 그가 “우화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자”라는 것이다.

(자) 史臣은 논한다. … 그는 성격이 본래 우화한데다가 또 사체를 몰랐으므로, 그의 일과 처사가 모두 아이들 장난과 같았다.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결점으로 여겼다. … 또 논한다. … 득강은 성격과 행동이 경박하고 주장에 뿌리가 없었다. 간

30) 『중종실록』 권65 중종 24년 6월 28일조, “大司諫魚得江 前者不樂仕進 似有恬退之節”

31) 『중종실록』 권65 중종 24년 6월 28일조, “雅尙廉恥 居鄉 家舍寒素 無異韋布 且不以功名得失 戚戚於心 亦足以警世矣”

32) 『중종실록』 권65 중종 24년 6월 28일조, “得江 不樂仕進 有恬退之節”

33) 『중종실록』 권87 중종 33년 7월 7일조, “魚得江 人物雖似疎闊 廉退有操”

34) 『중종실록』 권92 중종 34년 10월 22일조, “魚得江 亦清簡恬退之士 又有文學 亦宜特用也”

35) 『중종실록』 권93 중종 35년 8월 24일조, “魚得江 性本疎闊 志尙廉退 不喜居官 雖不宜於治劇之任 如成均館官員 則亦可除授矣”

36) 『명종실록』 권9 명종 4년 10월 2일조, “嗚呼 二老恬退之節 自守之義 視患得患失 朝承恩暮賜死者 遠矣”

관에 발탁되어서는 동료들과 일을 의논할 때 의견의 차이가 많았고, 바른 말을 아
 되어 상의 잘못을 도왔다는 말을 못 들었다.³⁷⁾

(자)는 어득강이 김안로에게 탄핵 당하여 파직한 데 대한 사관의 논평
 이다. 사관이 어득강의 성격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우활하다는
 것이다. 우활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①현실의 경우와는 관련이 멀다 ②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다 ③주의가 부족하다”이다. 사체를 몰랐다는 사평
 을 참고할 때 사관이 지적한 부분은 “①현실의 경우와는 관련이 멀다”
 라는 의미에 가까운 듯하다. 사관이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일과 처사
 가 아이들 장난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사체를 모른다는
 것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그가 언행에서 보여주었던 원칙
 과 실용을 겸비하면서 강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말 그대로 어리고
 유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가 제시한
 대책이나 제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데서 오는 부정적 평가일
 것이다. 게다가 탄핵의 원인으로 지목한 그의 됃됨이이므로 역설적으로
 순진한 이상주의적 성향을 비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득강은
 ‘동료들과 일을 의논할 때 의견의 차이가 많았던’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왕조실록』을 나타나는 세인의 평판을 통해 살펴본
 어득강은 인물 형상은 백성을 구휼한 목민관, 절의와 염퇴를 실천한 지
 사, 우활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정리
 하면, 백성을 구휼하는 데 힘쓴 목민관이었으나 세상의 영예에 관심이
 없었기에 염퇴하여 절의를 지키는 삶을 살았고, 이 때문에 우활하고 세
 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자라는 평판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그의
 성향이 언행을 통해 표출될 때,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보였고, 냉철한 판단으로 분명하게
 간언한 강직한 신하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어득강이 실제로

37) 『중종실록』 권65 중종 24년 6월 28일조, “史臣曰 … 性本疎迂 且不識事體 凡其所爲
 與處事 有同兒戲 時以此短之 … 又曰 … 性行浮誕 持論不根 擢爲諫官 與同僚議事
 多有異同 未聞進一謹言 以補闕遺”

하고자 한 일은 세상의 교화에 도움이 되는 역할, 이른바 치인이었기에 인재 양성을 위해 서원과 서사 설치를 주장한 실용주의자의 면모도 동시에 보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기록과 창작에 수용된 어득강의 인물 형상

『왕조실록』에서 언행을 통해 추출한 어득강의 인물 형상과 평판에 나타나는 어득강의 인물 형상은 실제 어득강의 인물 형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강직하면서 원칙을 중히 여기고 세상의 영예에 무관심하며 염퇴와 절의를 숭상했기에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현실의 어득강을 세인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그를 제재로 하여 어떤 창작을 펼쳤던가, 그리고 그렇게 형상화한 어득강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따져 보기로 한다. 선택과 변용을 거쳐 기록하고 창작한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어득강의 인물 형상과 그들이 기억하고 싶어 하는 어득강의 인물 형상을 만날 수 있다.

1. 地誌에 수용된 어득강의 인물 형상

지지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범위의 지역에 대해 일정한 항목과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다. 16세기를 지나면서 마을 중심의 양반지배체제가 완성되어 안정기에 접어들자, 지방관과 고을 양반들의 합작으로 개별 고을의 상황을 훨씬 더 많이 수록한 단행본의 고을읍지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것은 李耥가 1507년(중종 2)에 편찬한 경상도 의성의 읍지인 『聞韶志』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전해지지 않아 확실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1581년(선조 14)에는 鄭述가 경상도 창녕의 읍지인 『昌山志』

를 편찬했으나 역시 전하지 않는다.³⁸⁾

이런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지가 편찬되었고, 그 속에 어득강에 대한 기록도 수록되었다. 『밀양지』, 『하동지속수』를 비롯하여 『고성군읍지』, 『곤양군읍지』 등 20종의 지지 자료³⁹⁾에서 살펴본 어득강의 인물 형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가 뛰어난 문장가로서 지역에 제영시와 묘갈명, 상량문 등을 남긴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지지의 특성상 저명한 누정과 뛰어난 인물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어득강이 지은 글이 그곳에 있다거나 저명한 인물의 묘갈문을 어득강이 지었다고 기록한 것이다. 예컨대 『교남지』에서 어득강을 언급한 것은 31건인데 이 가운데 18건⁴⁰⁾이 어득강이 제영시, 묘갈문을 지었다는 내용이다. 31건 가운데 어득강의 이름만 언급한 관환과 서원 편 12건을 제외하면 엄밀하게는 19건 가운데 18건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양상은 여타의 지지 자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대부분의 기록은 제영시, 묘갈문, 상량문, 기문 등을 어득강이 지었고 그것이 지금 전하거나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지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관련 지역에 글을 남긴 사람 가운데 어득강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가 지은 글이 불만만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그런 평가에 힘입어 지역 명사의 묘갈문을 어득강이 지었다고 함으로써 지역 명사의 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3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지>,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4401>.

39) 지지 관련 자료는 사천시·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간, 『구암학 자료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2차년도) 보고서 III』(2019)을 이용하였다.

40) 사천시·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간, 『구암학 자료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2차년도) 보고서 III』(2019), 125~129쪽. 예컨대 『교남지』 권53 진주군 누정 편에 “명홍정은 송곡리에 있는데 관서 조윤손이 세웠다. 관포 어득강이 지은 상량문이 남아 있다.(冥鴻亭 在松谷里 判書曹潤孫建 有灌圃魚得江樑訟)”라거나 같은 책 진주군 인물 편에 “성안중은 본관이 창녕이다. 사간을 지낸 자량의 손자로 성조 조에 급제하여 교리를 지냈다. 어득강이 비문을 지었다.(成安重 昌寧人 司諫自諒孫 成廟進文校理 魚得江撰碑)”라고 한 것이다.

둘째, 백성을 구휼한 목민관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 대체로 그 지역의 목민관으로 나아갔을 때의 기록인데 『밀양지』와 『곤양군읍지』에 관련 기록이 있다. 이 가운데 『밀양지』의 기록은 어득강이 통정대부의 자품을 가지고 밀양부사로 왔다는 것을 특기한 것[魚灌圃得江以通政來]이고, 『곤양군읍지』에서는 “잘 다스렸다는 큰 명성이 있었다[大有治聲]”고 하여 그의 치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건수만을 놓고 볼 때, 위에서 제시한 문장가의 모습에 비해서는 대단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지에 나타나는 어득강의 인물 형상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셋째, 절의와 염퇴의 지사로서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해당 지역의 주요 인물로 어득강을 제시하고 그를 소개할 때 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교남지』 진주군 인물 편, 『영지요선』 진주 인물 편, 『진양지』 임관 인물 편, 『진주통지』 인물 편, 『철성지』 인물 편 등을 들 수 있다.

(차) 魚得江: 字는 子游요. 號는 灌圃니 本 咸從人이다. 壬子에 生員 丙辰에 文科. 그러나 때는 燕山朝라 山水性癖을 살려서 仕進에 뜻하지 않을 뿐더러 時事의 不靖함을 보고 謎語에 假托하므로써 스스로 자취를 묻었다. 固城 混沌山下에 卜築하여 混沌泳潭泗濱等處泉石居停 灌圃抱瓮丈人이라 自號하다. 中宗朝에 屢劄하여 大司諫이 되다. 退溪가 그 詩集跋을 지었다.⁴¹⁾

절의와 염퇴의 지사로 어득강을 그리고 있는 지지의 기록은 대동소이하다. (차)에서 보는 것처럼 연산군의 때를 만나 시사가 올바르게 않았으므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수수께끼 같은 은어에 가탁하여 스스로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록은 위 『왕조실록』에서 보았듯이 어득강이 종종 조에 활약한 것을 거의 생략하였기에 어득강의 모습 가운데 극히 일부만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의 지지 서술자들은 어득강이 조정에서 활약한 모습보다는 지역에서 어떠한 삶을 영위하였는가에 더 관심을 가

41) 『진주통지』 권3 인물, 함중어씨 편. 위 보고서 136쪽.

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대쪽 같은 모습으로 정계에서 활약한 모습 보다는 지역에서 유유자적하며 염퇴의 절의를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부각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시 관계 진출이 어려웠던 사람의 선 비에게 위안과 귀감이 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어득강의 다른 한 부분인 소신과 원칙의 대쪽 같은 모습이 거세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선택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재기와 유머가 넘치는 재담가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에 살펴볼 문헌 전승 자료에서 더러 보이는 재담가로서의 어득강의 모습을 지지에 편입한 결과로 보인다. 『철성지』 권2 叢談 편에 어득강을 제재로 한 문헌 설화 2편이 수록되어 있다. 하나는 어득강이 언 어유회의 재치를 발휘하여 주위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도 임금과의 사이에서 재기를 발휘하여 주변을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대체로 재담가 어득강의 이야기가 유행한 이후에 그 가운데 채택되어 지지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지지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지지에 보이는 어득강의 보편적인 인물 형상이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지의 기록자들이 어득강에 관한 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의 재기와 언어유회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어득강 인물 형상의 변모 양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지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료라는 점에서, 관련 인물의 어떤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이 일정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어득강의 여러 모습 가운데 지지의 기록자들은 지지의 특성상 관련 자료의 수합에 치중하여 어득강이 남긴 많은 문학 자료를 수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어득강이 문재가 뛰어난 문장가였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그가 남긴 제영시와 묘갈문이 있음을 내세움으로써 지역의 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한편 어득강이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에는 그가 조정에서 활약한 모습에 주목하기보다는 물러나 유유자적하며 은어에 가탁하여 절의를 지킨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어득강이 지역에서 수행한 역할에 주목한 것이

며, 어득강을 통해 지역에서 담아내야 하는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지의 기록자들이 기억해야 할 어득강의 모습은 조정에서 활약하는 강직한 신하가 아니라 염퇴하여 자적하는 지역의 인사였던 것이다.

2. 문헌 전승 자료에 수용된 어득강의 인물 형상

어득강을 다루고 있는 문헌 전승 자료에는 『景賢錄』, 『大東韻府群玉』, 『海東野言』, 『於野談』, 『芝峯類說』, 『風巖輯話』, 『燃藜室記述』, 『寒臯觀外史』, 『五洲衍文長箋散稿』, 『林下筆記』, 『國朝人物志』, 『松溪漫錄』, 『朝鮮科宦譜』, 『沂洛編芳』, 『小華龜鑑』, 『紀年便攷』, 『昌寧成氏文行列傳』, 『稗官雜記』, 『慶尙道咸安郡叢錄』, 『姓號譜彙』, 『鷄鳴漫錄』, 『東國野言』, 『文獻攷略』, 『海東雜錄』 등이 있다. 여기에는 실제의 인물 형상뿐만 아니라 허구적 인물 형상도 찾아 볼 수 있다.

어득강을 다루고 있는 문헌 전승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 형상이 보인다. 첫째, 절의와 염퇴의 지사로서의 모습이다.

(카) 어득강은 文孫의 아들이며 變甲의 종증손이다. 성종 경인년에 태어났으며 姜渾의 매부이다. 자는 子游이고 호는 灌園 또는 渾沌主人이다. 연산군 병진년에 진사에 등과하여 관직은 가선대부 대사간에 그쳤다. 문장과 해학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으며 노년에 향리로 물러났다. 성품이 진솔하고 恬淡하여 거처가 선방 같았다. 종종 때 대사간이 되었는데 관직을 버리고 진주로 낙향하여 거기서 생을 마쳤다. 급제한 뒤로 지방의 원이 되기를 바랐고 청화요직으로 불려도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산수 사이에 작은 집을 짓고 집안의 번잡한 일을 완전히 끊고서 다만 하인 하나만 데리고 조식의 끼니를 돕게 하였다. 서원에 제향되었다.⁴²⁾

(카)에서는 어득강의 가계와 자호 등 신상을 먼저 서술하고 그의 관환을

42) 『기년편고』 권11 <어득강>, “魚得江文孫子 變甲從曾孫 成宗庚寅生 姜渾妹夫 字子游 號灌園 又渾沌主人 燕山丙辰 以進士登科 官止嘉善·大司諫 以文章諧謔名於世 退老于鄉 性真率恬淡 居處如禪室 中宗時 為大司諫 棄官歸晉州 終不起 自登第 皆乞外郡 召以華要 皆不就 構小屋於山水之間 絕去家累 只率一僮 畧具朝夕之供 院享”

이어서 이야기한다. 이어서 그의 생평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으로 증앙의 요직이 아니라 지방의 한직을 바랐고, 그나마도 물러나서는 관리로서의 위세 보다는 자연 속에서 소탈하게 유유자적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소화귀감』, 『경상도함안군총쇄록』, 『국조인물지』, 이가원(1917~2000)의 『이조명인열전』⁴³⁾ 등에 보이는 어득강 인물 형상의 한 전형이다.

둘째, 재기와 유머가 넘치는 재담가의 모습이다.

(타) (어득강은) 사람들과 말할 적에 우스갯소리를 섞어 썼다. 하루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하여 말하기를, “都事 鄭萬重이 갈려서 文學이 되어갔다.”라고 하였다. 어득강이 그 말을 듣자마자 문득 말하기를, “내가 이미 문학이 되었는데 어찌 정씨가 그것을 한단 말인가?” 하였다. 좌우에서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어득강이 말하기를, “(『논어』에) 문학은 子游와 子夏라 하지 않았는가.” 하니, 들은 사람들이 허리가 끊어져라 웃었다.⁴⁴⁾

(타)는 어득강의 자가 자유인 점을 응용하여 언어유희의 골계미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어득강이 정만중이 문학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자신의 자와 연관한 우스갯소리를 구연하여 좌중을 포복절도하게 하였다. 어득강의 언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스워하는 이유는 절묘한 언어유희와 전광석화 같은 순발력 때문이다. 이런 기발함과 순간적 재치 때문인지 비슷한 류의 언어유희담이 문헌 전승 자료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⁴⁵⁾

한편 어득강의 기지를 드러내는 이야기 가운데 허구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문헌 전승 자료도 있어 어득강이 단지 말재주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이가원, 『이조명인열전』, 정음사, 1986.

44) 『연려실기술』 권9 중종조 고사본말, “與人語 雜以諧浪 一日 與人對坐 有人傳言 都事 鄭萬重 遞拜文學而去 魚輒應聲曰 吾曾爲文學 何以云鄭也爲之 左右相問之 魚曰 不曰 文學子游子夏乎 聞者絕倒”

45) 이외에도 곤쟁이젓과 감동젓의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담(『해동야언』), 왜인 등안길의 이름과 관련한 언어유희담(『어우야담』), 불켜다와 不賢者의 동음이의어적 성격을 활용한 언어유희담(『계암만록(鷄鴨漫錄)』) 등이 있다.

(파)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조종 조에 어득강이 물에 빠졌다가 건져 올려진 일이 있었다. 이에 임금이 물으니, “굴원을 만났는데, 그가 이르기를, ‘나는 암주를 만나 강에 빠져 죽었으나 너는 명군을 만났는데 무슨 일로 왔는가?’라고 하였습니다.”라 대답하였다.⁴⁶⁾

(파)는 『용재총화』 권3에 있는 고려 장사랑 영태라는 인물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어득강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어득강의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재담가 어득강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이야기를 차용하였다는 점에서 어득강에 대한 허구적 인식의 한 면을 볼 수 있다. (파)에서 볼 수 있듯이 어득강은 위기의 순간에 재치를 발휘하여 물에 빠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로 만들고 있다. 어득강의 말솜씨는 언어유희의 재기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도 내포하고 있음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문헌 전승 자료에는 어득강이 주로 절의와 염퇴의 지사, 재기와 유머가 넘치는 재담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재담가의 이 모습이 변전하여 언어유희에 능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위기를 지혜로 바꾸는 지혜도 가진 인물로 창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실제의 기록에 생긴 찰나의 균열이지만, 이 균열은 단단한 기록의 긴장을 부수는 한 번의 서늘한 拔刀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실제 ‘있는 것’에서 변전하여 허구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생성한 것이다. 그 ‘있었으면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갖추고 세상에 드러난 것이 『어득강전』이다.

3. 고소설에 수용된 어득강의 인물 형상

어득강에 대한 허구적 인물 형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어득강전』이다. 『어득강전』은 문헌 전승 자료에 등장하는 재기와 유머가 넘

46) 『지봉유설』 권16 「語言部」, “世傳 祖宗朝 魚得江溺水拯出 上問之 對曰 遇屈原 云我逢暗主投江死 汝遇明君底事來”

치는 재담가의 모습과 대단한 친연성을 보여주면서도 어득강의 실제 인물 형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새로운 인물 형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략을 요약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리인을 통해 속임수를 수행하는 책사적 영웅의 모습이다. 『어득강전』에는 모두 여섯 차례의 속이기 장면이 등장한다. 첫 번째는 평안 감사가 보낸 비장을 속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보낸 나이 든 비장을, 세 번째는 진사인 감사의 아들을 속이는 장면이다. 이들이 모두 속아서 곤욕을 당하자, 네 번째로 감사가 직접 나섰으나 마찬가지로 욕을 당한다. 이런 일이 조정에 알려져 다섯 번째로 임금이 어사를 파견하지만 어사도 어득강의 꾀에 넘어간다. 결국 여섯 번째로 임금이 직접 어득강을 불러 그의 행동을 견책하려 하였는데, 어득강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결국 임금마저 “만조를 돌아보시고 칭찬 왈 이런 직조와 구변은 업도다 하고 즉시 네관을 불너 승품하라(29면)” 하는 데 이른다. 이 과정에서 어득강은 자신의 지혜로 도전을 물리치지만 직접 나서서 계교를 설치하거나 언술을 펼쳐 상대를 제압하지 않는다. 임금과의 대결을 제외하고는 수하에게 계교를 설명 지시하며, 이 지시를 받아 아랫사람들이 전면에 나서 계교를 수행한다.

(하) 어공이 중을 불너 머리 깎난 칼을 가져올아 하여 비장의 머리를 비탁케 하고 인하여 곡갈을 써우고 장삼을 낚히고 두류 뉘엿더니 쏘흔 중을 불너 왈 술이 썩거든 노승이라 하여 선스임은 뒷걸의 지을 올니오니 밧비 올나가스이다(하라 하고) 어공은 본관으로 도라오니라.⁴⁷⁾

(거) 그 비장 와서 어공의 허물을 잡으 설치코져 하여 각 고을 적간하니 탈자불고지 업더라 올으있다가 속을가 두려워 식비 일즉 갈아라 하더라 본관이 보고 고하여 순영비장 갈 식비의 여츠여츠하(하니) 치모 념을 듯고 꼭두손이을 진케 달려 세수물을 노와더니 ...⁴⁸⁾

47) 『어득강전』, 정신문화연구원본, 2면. 띄어쓰기와 괄호 안의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삽입한 것이다. 이하 동일.

48) 『어득강전』, 정신문화연구원본, 4면.

(너) 순스또 즈제 향산 구경 가던 길의 잠간 뵈오려 왔노라 하니 일변 감스혀여
마즈드리고 일변 네방을 불너 분부왈 여츠여츠 하라 하니 ...49)

(하)는 어득강을 감찰하러 온 비장의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힌 뒤, 중에게 노승인 체 데리고 가 재를 올리게 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며, (거)는 나이 든 비장이 속을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자, 찬모에게 다음날 새벽에 이리저리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다. (너)는 감사의 진사 아들이 어득강을 속이려 왔을 때, 어득강이 수하 예방에게 속일 방법을 지시하는 장면이다. 이후 관아에서 복어를 대접하고 복어를 장만했던 요리사가 독에 중독되어 죽었다고 꾸미고 복어를 먹은 감사의 자제에게 해독제라며 똥물을 먹이는 사건이 이어진다.

세 장면 모두에서 어득강은 속임의 주체이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고 수하에게 지시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후 감사와 어사를 속일 때도 이러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때 (하)에서는 중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거)에서는 순영 비장이 갈 새벽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너)에서는 여차여차 하라고 하여 속임수를 완전히 숨기고 있다. 이러한 수법은 속임수를 숨김으로써 속는 장면을 극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임금과 마주할 때를 제외하고 이러한 장면이 『어득강전』의 전편을 채우고 있다는 것은, 어득강의 책사적 성격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득강은 지략이 뛰어난 인물이며, 그 지략을 주도면밀하게 설계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부당한 권력의 압제에 기지를 통해 저항하는 인물의 모습이다. 『어득강전』에서는 모두 여섯 차례의 대결이 펼쳐지고 그 대상도 각각 다르다. 하지만 모든 대결은 초점이 감사와의 대결에 맞추어져 있다. 왜냐하면 대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득강이 부임하야 방벽을 뵈오니 방벽이 호승을 다토고져하야 득강 잇는 골의 슬람을 보너여 허물을 자바

49) 『어득강전』, 정신문화연구원본, 6면.

조롱코저 흘식(1면)”라고 하여 감사가 허물을 잡아내어 어득강을 조롱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어득강은 각각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최후의 승자가 된다.

그런데 이 대결의 본질이 단순히 호승을 다투는 마음은 아니었던 듯하다. 감사가 수령의 꼬투리를 잡아 조롱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종의 신래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즉 벼슬을 처음 시작하는 후배 관원이 선배 관원에게 성의를 표하는 면신례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공[宋昱]이 이미 장성하자 용맹이 남보다 뛰어났다. 광해군 8년(1616)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에 임명되었는데, 고사에 따라 선전관의 면신례에 몽둥이로 때려 몹시 심하게 곤욕을 치르게 하였다. 공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 마침내 출사하지 않았는데 그다음 해에 다시 임명되었다. 이에 동료들이 바로 면신을 허락하였다.⁵⁰⁾

극단적인 예이지만 (더)는 면신례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면신례 때문에 출사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어득강전』에서 감사는 어득강이 삼화 부사로 부임하여 감사에게 인사를 드리자마자, 곧바로 조롱하고자 한다. 그것이 두 차례 실패하자, 감사는 “비장이 두 번 욕을 (뱉을) 보고 북글어오물 춤지 못ㅎ(5면)”였고, 세 번째 실패하자, “불과 히롱이늘 제 이긋치 춤혹한 욕을 뵈이리오 닉가 친히 가서 변고ㅎ고 그 골의 집탈하여 파직을 ㅎ리라 제 직락과 구변이 조흔덜 방빅과 엇지 결우리오(9면)”라면서 직접 어득강을 파직할 꼬투리를 잡으려 나선다.

이에 대해 어득강은 『매비장전』에서 기생 애랑이 그랬던 것처럼 청상과부의 모습으로 꾸민 홍랑을 내세워 감사의 위선적인 절개를 꺾고, 나아가 홍랑이 죽었다고 속여 결국 감사 스스로 퐁물을 마시는 지경에 이르게 한다. 결국 권력의 최상위인 임금까지 나서서 상관에게 저항한 어득강을 조치하고자 하지만, 어득강은 달걀로 성을 쌓으라는 과제를 수행

50) 『몽오집(夢梧集)』 권7 <지중추부사 송공 시장(知中樞府事宋公諡狀), “公既長 驍勇絶人 光海八年 中武科及第 拜宣傳官 故事宣傳官免新 椎朴備極困辱 公耻之 遂不仕 其翌年 又拜則諸僚直許免新”

하면서 조정 대신들에게 달걀을 가져오게 하고, 그들이 달걀을 가져왔을 때 수탉처럼 우는 기지를 발휘하여 조정 대신 모두를 암탉으로 만듦으로써 통쾌하게 기존의 부정적 권위를 전복해버린다. 나아가 임금에게 인정받아 작록이 오른다.

셋째, 희극적이고 유연한 징벌로 불의에 맞서서 승리를 쟁취하는 따뜻한 인물의 모습이다. 평안감사로 대표되는 불의의 권력 앞에서 어득강은 기지로 맞서 승리한다. 이때 어득강은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당대의 정계는 치열한 당쟁 속에서 삶과 죽음이 갈리는 심각한 대립의 공간이었지만, 소설 속에서 어득강은 머리 깎아 중 만들기, 수염 물들이기, 똥물 먹이기, 임무를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등 대단히 유연한 벌칙으로 승리를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유연한 징벌로 불의에 맞서기 때문에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해를 입지 않는다. 또 망신 당한 사람도 체면을 손상할 뿐, 물리적 해를 입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대결의 결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상생의 길이 펼쳐진다.

IV. 마무리

이상에서 『왕조실록』, 각종 지지와 문헌 전승 자료, 고소설에 보이는 어득강의 인물 형상을 살펴보았다. 내용을 요약하고 각각의 의미를 짚어봄으로써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왕조실록』에 보이는 어득강의 인물 형상은 원칙주의자, 강직한 신하, 실용주의자의 면모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득강을 구휼의 목민관, 염퇴의 지사, 순진한 이상주의자로 평가하였다. 『왕조실록』에 보이는 어득강의 이런 모습은 실제이며 ‘있는 것’이다. 대체로 굳세보이는 외형과 기질 속에 따뜻한 품성을 지닌 어련애 같은 면모라고 요약할 수 있다.

‘있는 것’은 후대의 필요에 따라 다시 선택되는 과정을 그친다. 지지에는 ‘있는 것’ 가운데 문장가의 면모, 염퇴와 절의의 지사라는 측면이 주로 채택되었다. 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실을 기록한다는 측면이 강조

되는 지지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민이 선택한 결과이다. 조정에서 다양하게 활약한 어득강보다 향리에서 유유히 삶을 구가한 어득강이 더욱 매력적이었고, 어득강을 그렇게 기억하고자 하는 인식이 반영되었던 것이다. 또한 직접 느낄 수 있는 제영시, 묘갈문, 상량문 등의 작품은 한양저 멀리 대궐에서 서슬을 세우던 어득강을 우리 곁으로 불러온다. 그 결과 어득강은 멀리 있는 신기루가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실체로 존재할 수 있었다.

문헌 전승 자료에서는 ‘있는 것’에서 나아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다. 각종 문헌 전승 자료에서 선택한 ‘있는 것’은 염퇴의 지사라는 이미지와 여기에 더하여 재담을 잘한다는 특별한 재능이었다. 특히 재담가의 인물 형상은 『왕조실록』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것인데, 역사에 대한 인식과 그 서술 영역이 확대되는 조선 후기의 문학사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부각한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문헌 전승 자료는 어득강을 재발견하고 어득강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한 단계 전환하면 ‘있었으면 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허구를 통해 그 요구가 실현된다. 그렇게 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문헌 전승 자료 가운데 다소 허구적 성격이 강한 자료에 보이는 어득강의 인물 형상이다. 이런 자료에서 어득강은 언어유희를 잘하는 재담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번뜩이는 기지의 소유자로 나타난다. 이때 ‘있는 것’이 굳세고 경직된 카리스마였다면 ‘있었으면 하는 것’은 온건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단편적인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것이기 때문에 ‘있었으면 하는 것’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그저 재담가의 모습만이 조금 더 부각될 뿐이었다. 문헌 전승 자료가 채우지 못한 ‘있었으면 하는 것’은 고소설을 통해 구현되었다. 『어득강전』에서 어득강은 기지를 갖춘 재담가이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불의에 항거하는 책사형 영웅이었다. 그는 기지를 발휘하여 그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였고, 나아가 시대의 문젯거리를 해소하는 지경으로 나아간다. 이때 그의 저항과 징벌은 폭력적이지 않았고 포용적이었다. 즉 고소설에 구현된 어득강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상생의 길을 실천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아마 당대 작자나 독자가 요구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한편 『어득강전』의 인물 형상과 『왕조실록』에서 만났던 인물 형상이 사뭇 대조적이라는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어득강전』에서 볼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속임수를 수행하는 책사적 영웅의 모습은 『왕조실록』에서 볼 수 있는 냉철한 판단으로 분명하게 간언한 강직한 신하의 모습과는 상반되며, 또 고소설에 보이는 부당한 권력의 압제에 기지를 통해 저항하는 인물의 모습과 희극적이고 유연한 정별로 불의에 맞서서 승리를 쟁취하는 따뜻한 인물의 모습은 『왕조실록』에서 만났던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한 서늘한 원칙주의자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실록과 소설에서 제시한 인물이 양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양 극단을 지양하는 지혜일 것이다. 『왕조실록』에 보이는 어득강은 원칙에 매몰하여 실질만 추구하는 샌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있는 것’이 보여주는 한쪽의 모습이 어득강이라는 인물의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실제 ‘있는 것’ 가운데서 주목하지 않았던 점을 끄집어내게 하였고, 허구의 창작에서는 ‘있었으면 하는 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사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점은 강감찬 전승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강감찬전』, 『고려강시중전』 등 강감찬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에서는 “문헌 전승인 『고려사』 「열전」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서 역사적 사실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비현실적 화소에 현실성을 부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⁵¹⁾” 때문이다. 이는 소설의 독자가 요구하는 ‘있었으면 하는 것’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어득강전』에서는 해학과 기지를 겸비한 유쾌한 영웅상을 설정하여 문학의 쾌락적 기능을 강화하였다면, 『강감찬전』에서는 외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장렬한 영웅상을 설정하여 문학의 효용적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51) 백운용, 강감찬 전승의 지향과 그 의미 - 탄생담과 퇴치담을 중심으로, 『국학연구론총』 21, 태민국학연구원, 2018, 58~61쪽.

이러한 점은 어득강과 강감찬이라는 인물이 살아온 역사적 배경과 그것을 소재로 허구적 창작물을 만들 때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을 다음의 과제로 남겨둔다.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0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0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계압만록』

『교남지』

『기년편고』

『명종실록』

『몽오집』

『어득강전』, 정신문화연구원본.

『어우야담』

『연려실기술』

『중종실록』

『지봉유설』

『진주통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해동야언』

<위키 실록사전>,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 참조.

국사편찬위원회 편, 『신편 한국사 28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탐구당, 2003.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론 8 조선전기 서원과 향약』, 1980.

김수영, 「〈어득강전〉의 회극성 구현 방식」, 『민족문화사연구』 59,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5.

백운용, 「강감찬 전승의 지향과 그 의미 - 탄생담과 퇴치담을 중심으로」, 『국학연구론총』 21, 태민국학연구원, 2018, 58~61쪽.

사천사·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구암학 자료 및 연구 총서 발간 용역(2차년도) 보고서 III』, 2019.

심재숙, 「〈어득강전〉의 형성과정과 주제의식」, 『우리어문연구』 16, 우리어문학회, 2001.

오희정, 「〈어득강전〉의 기법적 특징과 창작 의식」, 『嶺南學』 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5.

이가원, 『이조명인열전』, 정음사, 1986.

정우락,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시에 나타난 ‘물’의 상상력」, 『南冥學研究論叢』 22, 남명학연구원, 201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제1판, 지식산업사, 1986.

최재남, 「어득강의 삶과 시의 특성에 대한 일고」, 『韓國漢詩研究』 11, 한국한시학회, 2003.

Abstract

The figure of a person on Eodeukgang in the actual record and fictional creation

Baek, Woon-young

Gwanpo (灌圃) Eodeukgang (1470-1550) was a civil official who served as a dedication, doctrine, and great affair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Records on it include not only official librarians but also many literary collections of the time and later generations, and also a novel 『어득강전(Eodeukgangjeon)』.

Therefore, research on Eodeukgang should be conducted by expanding the horizons, and paying attention to actual records based on history books, or carefully examining real and fictional characters.

As a result of paying attention to his words and reputation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Eodeukgang was a Mokningwan who worked hard to save the people, but he was not interested in the world's glory, so he retired and lived a life of keeping the temple, and for this reason, he gained a reputation as an idealist who was active and ignorant of the world. When this tendency was expressed through words and actions, he showed a principleist figure who wanted to solve the root of the problem according to laws and principles, and a staunch servant who clearly spoke with cool judgment. However, what Eodeukgang actually wanted to do was play a role that helped the world to edify, so he also showed the aspect of a pragmatist who insisted on establishing a school of honor and set up a bookstore to cultivate talent.

The figure of Eodeukgang in the geographical journal, was a writer with excellent literary talent, a Mokmingwan who saved the people, a retirement from integrity, and a joke artist full of talent and humor. Eodeukgang's figure, which appears in literature transmission materials of a fictional character, is the appearance of a joke artist full of humor and humor. This shows that Eodeukgang's figure, which was noted in the realm of fictional creation, was more of a resourceful joke than a principleist figure.

『어득강전(Eodeukgangjeon)』 presents a new figure. In other words, it is depicted as a book-historical hero who performs tricks through an agent, a person who resists the oppression of unfair power through a base, and a warm person who wins victory against injustice with comical and flexible punishment.

keywords :

Eodeukgang(어득강), Eodeukgangjeon(어득강전), a figure of a person, real, fictional, recorded, creative.

